

증권

할인 요인 해소에 대한 기대 [2월 monthly]

내재 할인율 비교

증권업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을 제시한다. 양사 모두 1) 높은 ROE에 비해 낮은 PBR을 받고 있고 2) 추후 리스크에 대비하고 주주환원 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현금 및 예치금의 규모도 시가총액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이다. 높은 할인율의 경우 한국금융지주는 PF에 대한 우려가, 키움증권은 브로커리지에 편중된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1) 한국금융지주는 적극적인 선제 총당금 적립과 압도적인 보유 현금으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2) 키움증권은 보유 현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PF 우려는 감내 가능

한편 당사는 최근 당국의 적극적인 총당금 적립 요구로 불거졌던 PF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당사가 약식으로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근거한다. 테스트는 1) 증권 자회사의 채무보증, 2) 증권 자회사의 대출금, 3) 저축은행 자회사의 총여신, 4) 캐피탈 자회사의 총여신 중 정상·요주의 등급 자산 전액이 일시에 고정으로 등급이 하향될 경우 추가로 적립해야하는 총당금 전입액의 규모를 1) 지배주주자본과 2) 현금 및 예치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론은 커버리지 5개사 모두 채무보증이나 대출채권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부실화되어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현금 및 예치금으로 이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Monthly review

최근 주가는 정부와 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직후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인율 하락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모든 주식들이 PBR 1배에 도달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시장 가격 형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단순하게 특정 수준만을 기준으로 급등세를 추종하는 것이라면 반작용으로 그에 상응하는 급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증권업 monthly는 매월 첫째 월요일에 나옵니다



정태준 보험/증권/은행/CFA
taejoon.jeong@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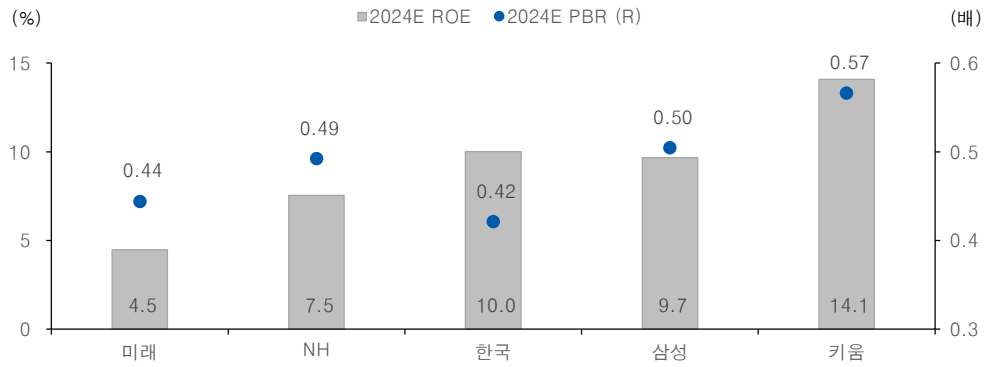
종목	투자조건	목표주가 (원)
미래에셋증권	종립 (M)	8,000 (U)
NH투자증권	매수 (M)	13,000 (U)
한국금융지주	매수 (M)	80,000 (U)
삼성증권	매수 (M)	48,000 (U)
키움증권	매수 (M)	145,000 (U)

1. 내재 할인율 비교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최선호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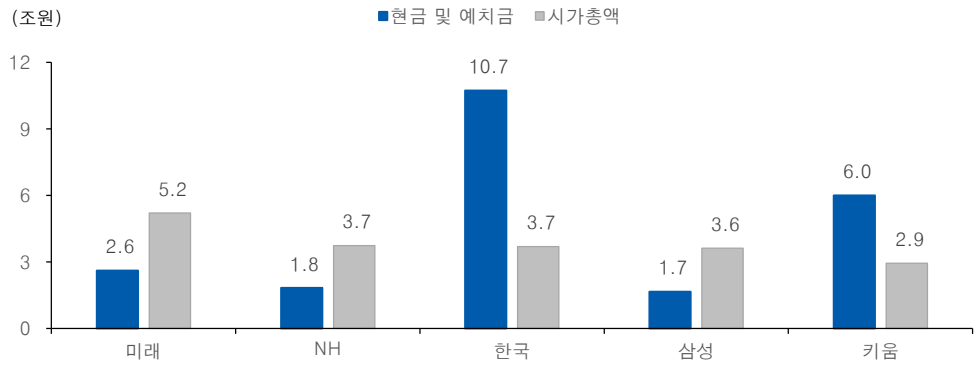
증권업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와 키움证권을 제시한다. 양사 모두 1) 높은 ROE에 비해 낮은 PBR을 받고 있고 2) 추후 리스크에 대비하고 주주환원 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현금 및 예치금의 규모도 시가총액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이다. 높은 할인율의 경우 한국금융지주는 PF에 대한 우려가, 키움증권은 브로커리지에 편중된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1) 한국금융지주는 적극적인 선제 총당금 적립과 압도적인 보유 현금으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2) 키움증권은 보유 현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ROE vs. PBR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현금 및 예치금 vs.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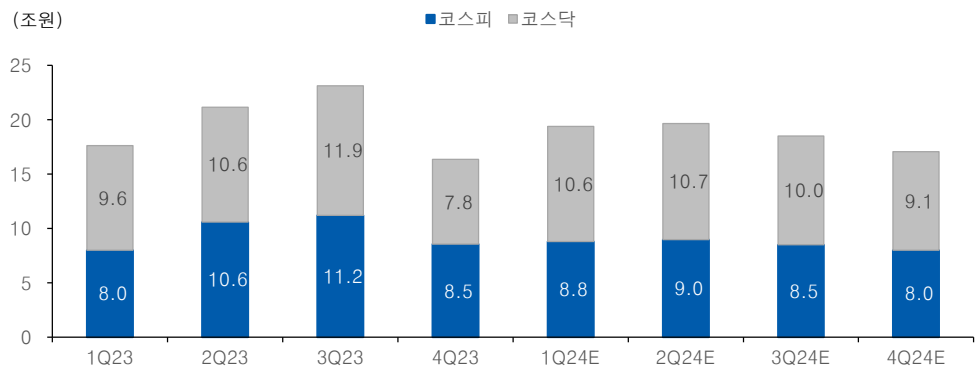


주: 현금 및 예치금은 3Q23 연결 기준, 시가총액은 2월 2일 종가 기준,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거래대금 증가와 할인율 하락 가능성을 반영한 목표주가 재산출

이에 더불어 당사는 최근 정부와 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1) 이에 대한 기대로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2) 증권사들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할인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목표주가를 재산출했다. 할인율 하락의 기준으로는 1) 2024년 예상 주주환원 수익률과 2) 잠재 주주환원 수익률, 3) 시가총액 대비 현금 및 예치금의 비중을 선정했다. 예상 주주환원 수익률이 유의미한가에 대한 판단은 6%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최근 몇 년 간 자금 이동이 나타났던 사례들에서 풀림이 발생했던 이자율 수준이 6%였기 때문이다. 잠재 주주환원 수익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전액 소각했을 때를 가정한 주당 수익률을 의미하며, 이 역시 6%를 상회할 때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3] 분기별 일평균 거래대금 전망



주: 현금 및 예치금은 3Q23 연결 기준, 시가총액은 2월 2일 증가 기준,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1] 목표주가 변경

(단위: 원, %)

	미래	NH	한국	삼성	키움	비고
기존 목표주가	7,000	12,000	75,000	45,000	130,000	
기존 2023E BPS	18,659	21,936	145,756	75,509	175,849	
기존 2024E ROE	4.3	7.5	9.9	9.4	14.0	
기존 사용 할인율	11.5	13.7	19.3	16.0	19.2	
2024E 주주환원 수익률	3.1	6.2	4.7	6.5	6.1	6% 이상 1%pt 차감
잠재 주주환원 수익률	7.8	0.4	1.4	-	4.4	6% 이상 1%pt 차감
현금 및 예치금 ÷ 시가총액	50.2	49.0	290.5	46.0	203.9	100% 이상 1%pt 차감
신규 사용 할인율	10.5	12.7	18.3	15.0	17.2	
신규 2023E BPS	18,659	21,806	145,756	74,159	175,849	잠정 공시 반영
신규 2024E ROE	4.5	7.5	10.0	9.7	14.1	거래대금 증가 반영
신규 목표주가	8,000	13,000	80,000	48,000	145,000	

주: 잠재 주주환원 수익률은 기보유 자사주를 전액 소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주당 수익률로 환산하여 산출

주: 현금 및 예치금은 3Q23 연결 기준, 시가총액은 2월 2일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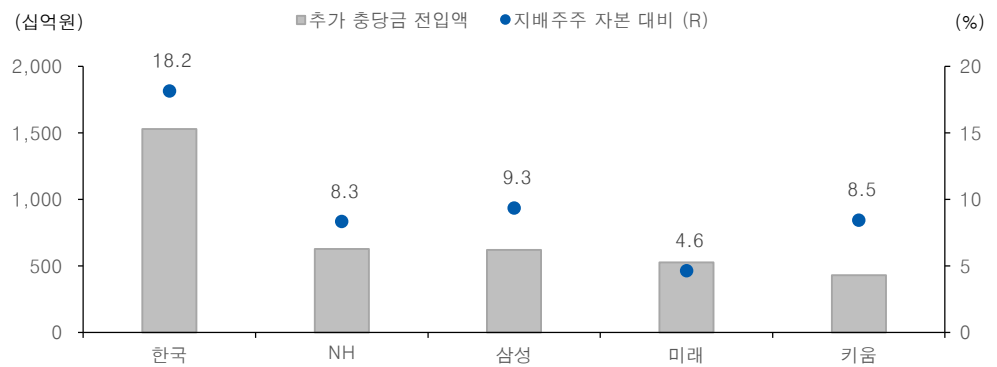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PF 우려는 감내 가능

스트레스 테스트: 극단적인 상황도 감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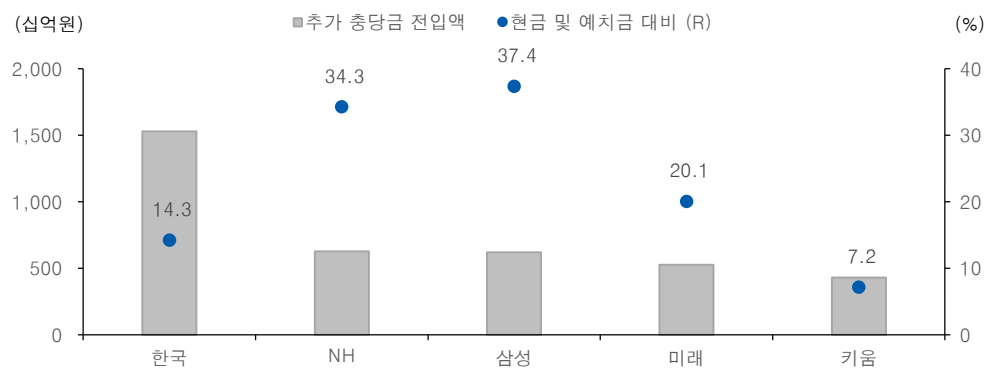
한편 당사는 최근 당국의 적극적인 총당금 적립 요구로 불거졌던 PF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당사가 약식으로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근거한다. 테스트는 1) 증권 자회사의 채무보증, 2) 증권 자회사의 대출금, 3) 저축은행 자회사의 총여신, 4) 캐피탈 자회사의 총여신 중 정상·요주의 등급 자산 전액이 일시에 고정으로 등급이 하향될 경우 추가로 적립해야하는 총당금 전입액의 규모를 1) 지배주주자본과 2) 현금 및 예치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그림 4]~[그림 11]에 요약되어 있으며, 결론은 커버리지 5개사 모두 채무보증이나 대출채권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부실화되어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현금 및 예치금으로 이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 증권 정상·요주의 등급 채무보증 전액 고정 등급으로 전환 시 필요 추가 총당금 전입액 vs. 지배주주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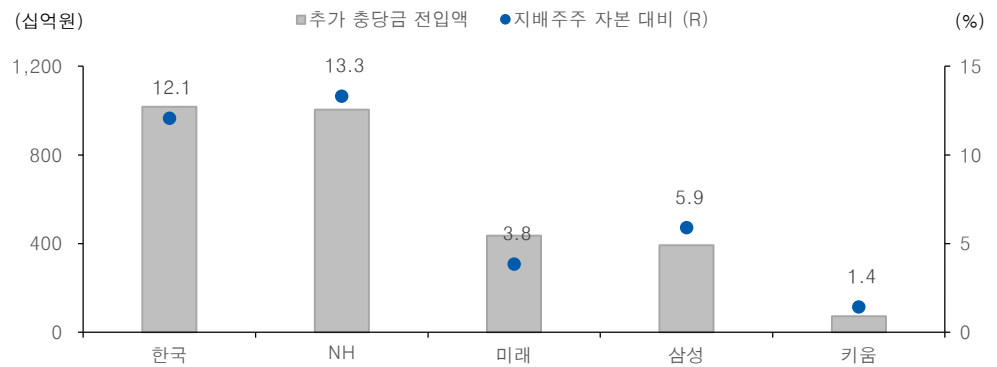
주: 3Q23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증권 정상·요주의 등급 채무보증 전액 고정 등급으로 전환 시 필요 추가 총당금 전입액 vs. 현금 및 예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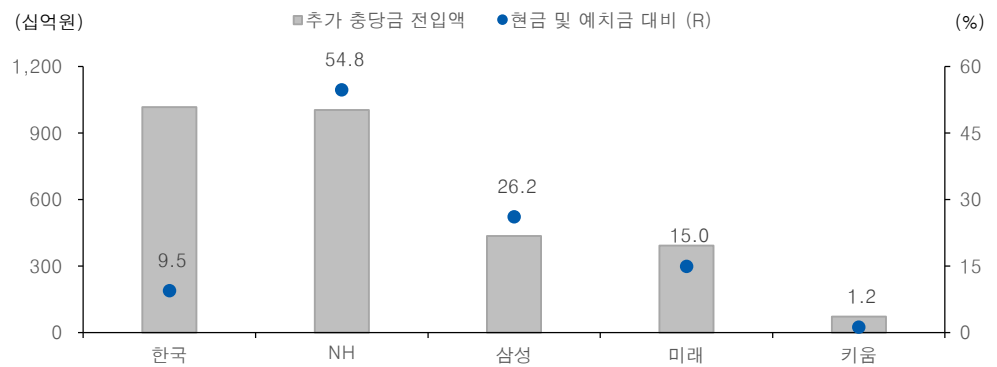
주: 3Q23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증권 정상·요주의 등급 대출금 전액 고정 등급으로 전환 시 필요 추가 총당금 전입액 vs. 지배주주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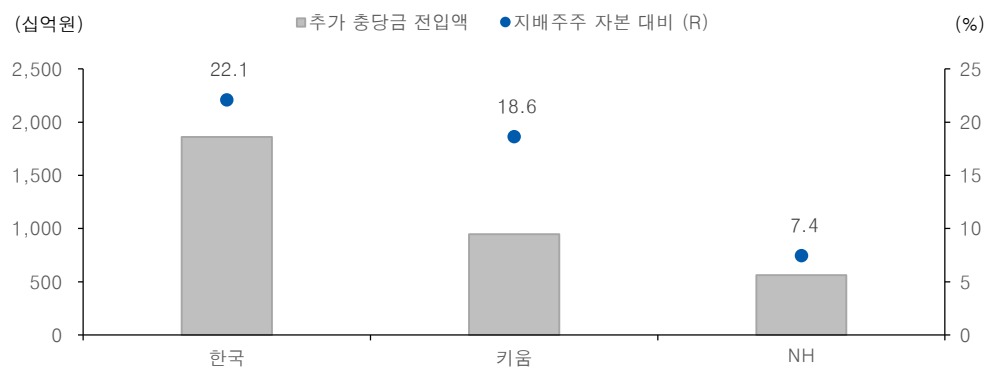
주: 3Q23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증권 정상·요주의 등급 대출금 전액 고정 등급으로 전환 시 필요 추가 총당금 전입액 vs. 현금 및 예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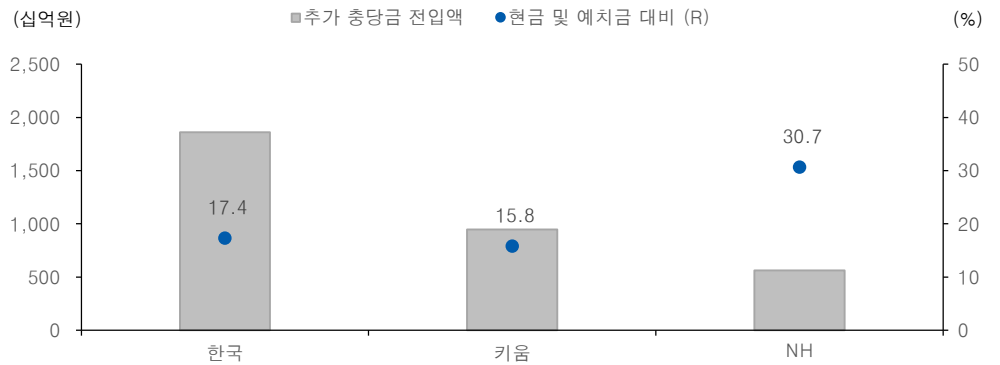
주: 3Q23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저축은행 정상·요주의 등급 여신 전액 고정 등급으로 전환 시 필요 추가 총당금 전입액 vs. 지배주주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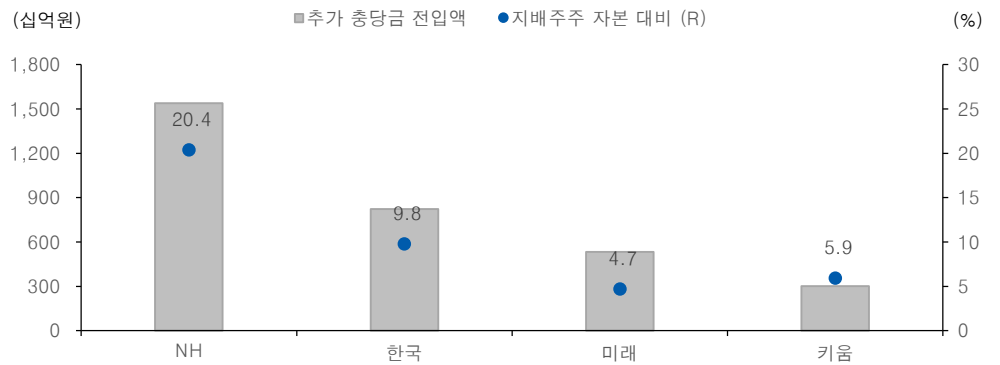
주: 3Q23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저축은행 정상·요주의 등급 여신 전액 고정 등급으로 전환 시 필요 추가 총당금 전입액 vs. 현금 및 예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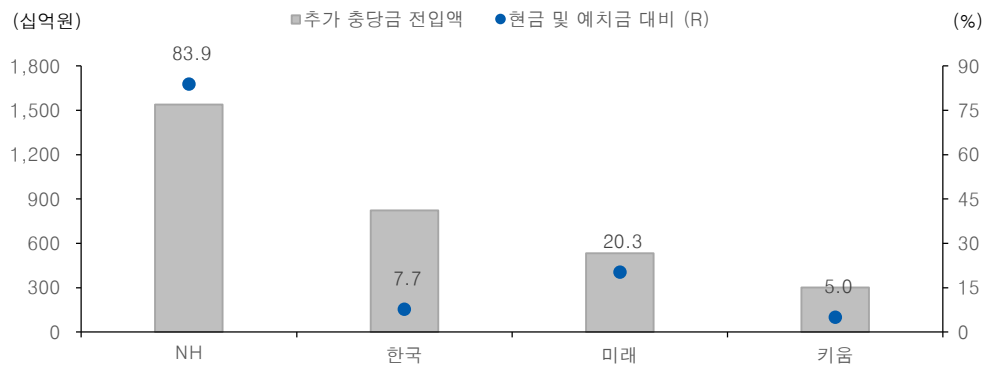
주: 3Q23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캐피탈 정상·요주의 등급 여신 전액 고정 등급으로 전환 시 필요 추가 총당금 전입액 vs. 지배주주자본



주: 3Q23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캐피탈 정상·요주의 등급 여신 전액 고정 등급으로 전환 시 필요 추가 총당금 전입액 vs. 현금 및 예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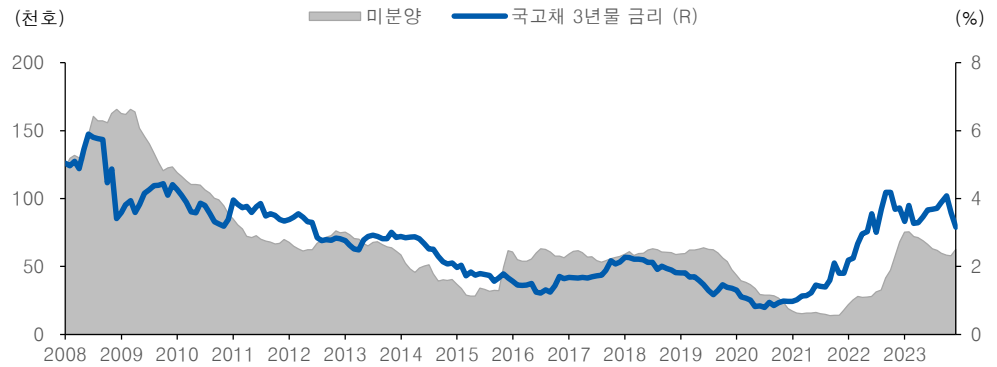


주: 3Q23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시장금리 하락은 호재

게다가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PF 우려는 1) 브릿지론과 2) 본PF로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또는 차환의 실패를, 본PF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발생을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1) 브릿지론 만기 연장이나 차환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관련 우려도 경감될 수 있으며, 2) 대출금리 하락으로 후분양 수요가 회복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 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더불어 준공 후 미분양에 선행하는 미분양의 절대 규모도 특별한 위기가 없었던 2016~2019년 수준에서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2] 주택 미분양 vs. 금리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주택 준공 후 미분양 vs.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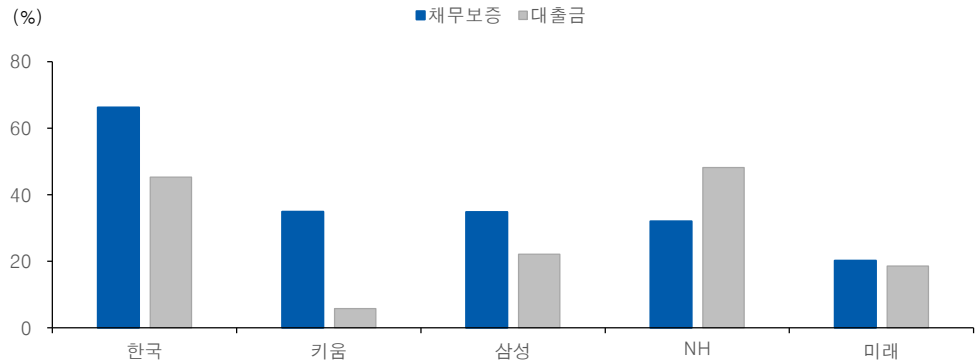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규제 환경 점검

또한 지난 2019년부터 크게 세 번에 걸쳐 PF 익스포저를 제한하는 규제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위험 감내 능력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 규제는 지난 2023년 5월 새마을금고 사태 직후 적용된 내용으로, 기존에 PF 대출보다 적은 위험값을 적용했던 PF 채무보증에 대해 PF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후 1) 채무보증의 직접 대출 전환이 증가하고 2) 신규 PF는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전에는 2021년 2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신규 PF 대출 취급이 둔화되었고, 2019년 12월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던 PF 익스포저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건전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당사 커버리지를 비롯한 모든 증권사들은 자본의 100% 이내 범위에서 채무보증이든, 대출금이든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보증과 대출금이 전부 PF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PF 시장의 절대 규모만을 가지고 막연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림 14] 자본 대비 채무보증 vs. 대출금



주: 3Q23 증권 별도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2] 2023. 05.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방향

현행	개선
- 회사규모에 따른 위험감내능력과 무관하고	- 실질 위험감내능력과 업무범위의 차이 등과,
- PF 사업장별 위험도, 변제 순위 등 개별 리스크와 무관하게 예) 사업단계, 사업장별 LTV	- 익스포저의 세부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예) 본 PF vs. 브릿지론 / 저 vs. 고 LTV / 선 vs. 후순위
-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위험값 차이만 크게 반영되는 형태 예) PF 대출: 자본차감 (실질위험값 100%) ABCP 채무보증: 18% (무등급 기준)	-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 최소화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3] 2021.02.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영향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 재정립 1)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위 조정 2) 기업금융관련자산 운용규제 상 '기업' 개념 정비 3) 건전성 규제체계 개편방안 검토	채무보증 잔액 감소 및 추가 확대 여력 축소
2. 부동산 PF 대출 관련 건전성 강화 1) 부동산 PF 대출 확대 유인 제거 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PF 대출 감소 충당금전입액 증가
3.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행 선진화	

자료: 금융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주요 내용 요약

구분	현행	개선	
종투사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대상	중소기업 관련 · SPC, 부동산 관련 포함 기업금융업무 관련 · 부동산 관련 포함	중소기업 관련 · (제외) · (+) 초기 중견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 관련 · (제외) · (+) M&A 리파이낸싱 및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기업금융관련 자산 범위	기업금융관련 자산 · SPC, 부동산 관련 포함	기업금융관련 자산 · (제외)
중소형 증권사	건전성 규제	NCR 부담 완화 대상 · 중소/벤처기업 대출	NCR 부담 완화 대상 · (좌동) · (+) 초기 중견기업 대출
	겸영업무 범위	겸영업무 범위 · 중소/벤처기업 대출	겸영업무 범위 · (좌동) · (+) 벤처대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6개사 지정 (2년 마다 재지정)	8개사 내외 지정

자료: 금융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5] 2019.12.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요약

추진과제	영향
1. 부동산PF 채무보증 관련 건전성 강화 1) 채무보증 취급한도 관리 2) 건전성 규제 조정 3) 유동성리스크 관리	채무보증 잔액 감소 및 추가 확대 여력 축소
2. 부동산PF 대출 관련 건전성 강화 1) 부동산PF 대출 확대 유인 제거 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PF 대출 감소 충당금전입액 증가
3.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료: 금융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6] 채무보증 취급한도 관리 관련 내용

구분	PF 대출	PF 채무보증
보험	없음	취급 금지
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20%	
증권	자기자본의 30%	(현행) 한도 없음 (개선) 자기자본의 100% 이내
여전사	여신성 자산의 30%	(현행) 좌측 30% 한도에 미포함 (개선) 좌측 30% 한도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7] 건전성 규제 조정 관련 내용

구분	상세
현행	(PF 채무보증) 신용위험액 12% (PF 대출) 일반증권사: 영업용순자본 차감 (PF 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위험액 18%
개선	(PF 채무보증) 신용위험액 18%로 상향 (PF 대출) 기존과 동일

자료: 금융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8] 유동성리스크 관리 관련 내용

구분	상세
현행	조정유동성비율은 경영실태 평가 시 계량지표로만 활용
개선	조정유동성비율 100% 미만 하락 시 1) 유동성 관리방안 제출 2) 6개월 이내 100% 이상으로 상향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자료: 금융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9] 부동산PF 대출 확대 유인 제거 관련 내용

구분	상세
발행어음 운용제도 개선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은 레버리지비율에 가산
기업신용공여 제도 개선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의 취급대상에서 부동산관련 대출은 제외
부동산대출 신용위험 특례 폐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액 특례대상에서 부동산대출 배제,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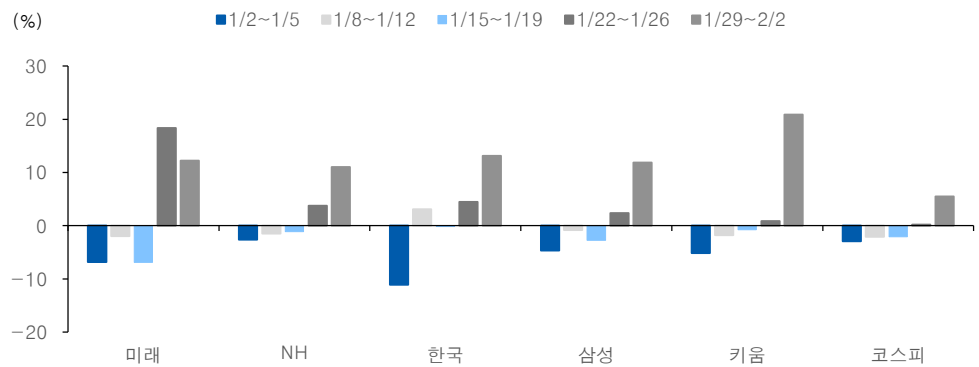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Monthly review

이성적인 추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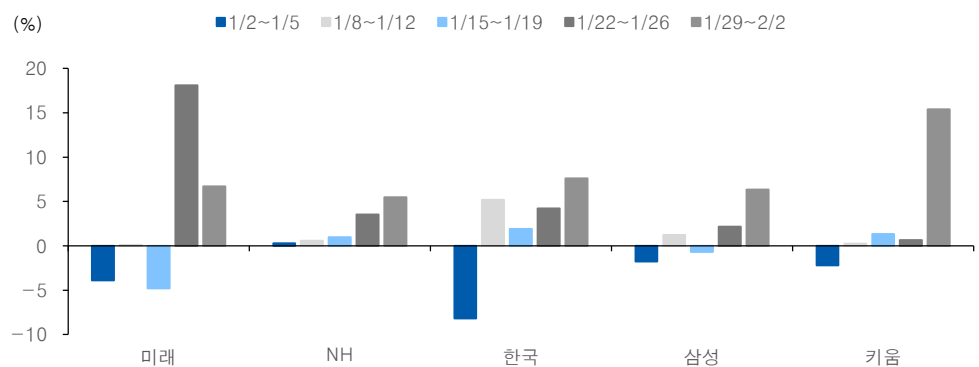
최근 주가는 정부와 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직후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인율 하락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모든 주식들이 PBR 1배에 도달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시장 가격 형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단순하게 특정 수준만을 기준으로 급등세를 추종하는 것이라면 반작용으로 그에 상응하는 급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주간 주가수익률 비교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코스피 대비 상대 주가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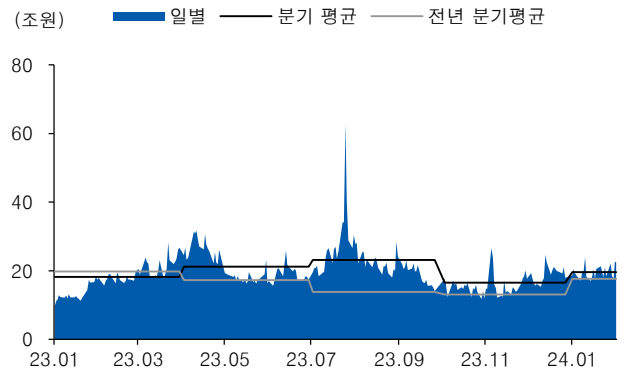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코스피 vs. 코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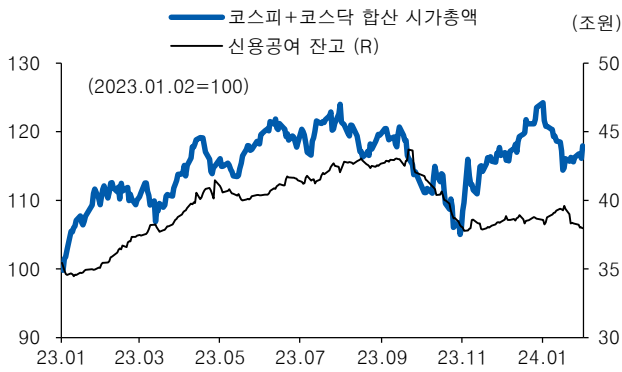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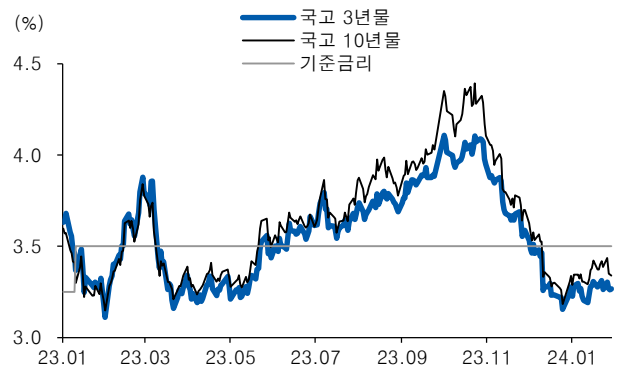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신용공여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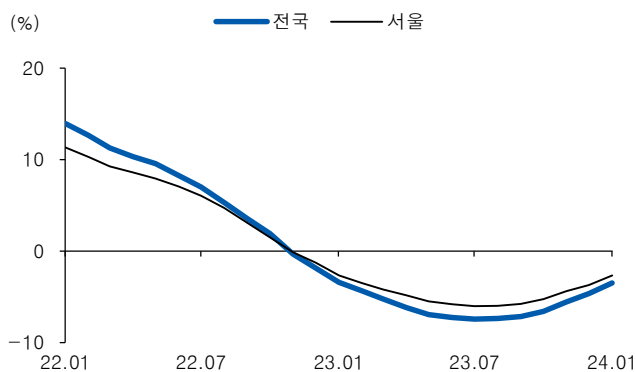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시장금리 vs.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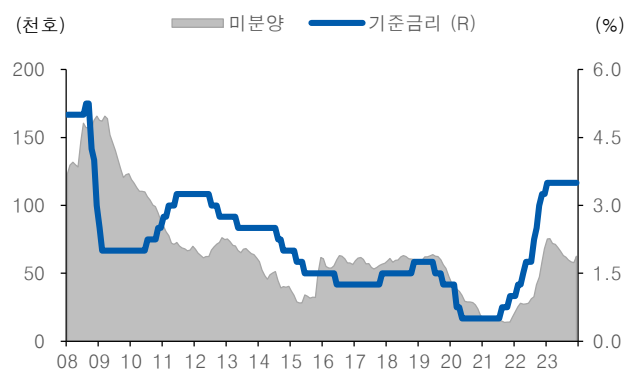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주택 매매가 지수 YoY 증가율



자료: KB 부동산,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2] 미분양 주택 vs. 기준금리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Valuation

[표 10] Valuation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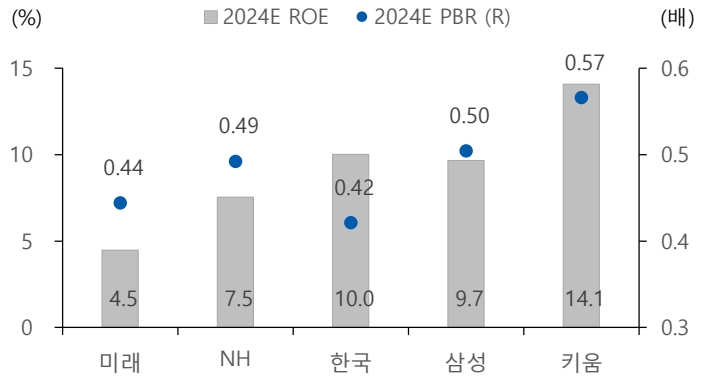
(단위: 배, %, 원)

	미래	NH	한국	삼성	키움
목표주가	8,000	13,000	80,000	48,000	145,000
목표 PBR	0.41	0.57	0.51	0.60	0.73
목표 PER	9.4	7.8	5.5	6.4	5.5
PBR					
2023E	0.46	0.52	0.46	0.55	0.64
2024E	0.44	0.49	0.42	0.50	0.57
2025E	0.42	0.48	0.39	0.48	0.51
PER					
2023E	12.6	6.7	5.0	5.6	6.6
2024E	10.2	6.7	4.6	5.4	4.2
2025E	8.4	8.0	4.5	5.6	3.9
ROE					
2023E	3.8	8.0	10.0	10.1	9.9
2024E	4.5	7.5	10.0	9.7	14.1
2025E	5.2	6.1	9.4	8.8	13.5
ROA					
2023E	0.36	1.09	0.88	1.11	0.94
2024E	0.40	1.03	0.89	1.02	1.34
2025E	0.47	0.83	0.88	0.94	1.31
배당수익률					
2023E	1.6	6.2	4.4	6.4	3.6
2024E	2.0	6.2	4.7	6.5	3.6
2025E	2.3	6.2	5.0	6.5	3.6
배당성향					
2023E	15.6	38.9	18.8	35.8	21.0
2024E	15.3	39.3	18.3	35.5	13.5
2025E	14.8	46.4	19.3	36.6	12.6
주당배당금					
2023E	140	700	2,900	2,600	4,000
2024E	170	700	3,100	2,650	4,000
2025E	200	700	3,300	2,650	4,000

주: 배당 지표는 보통주 기준,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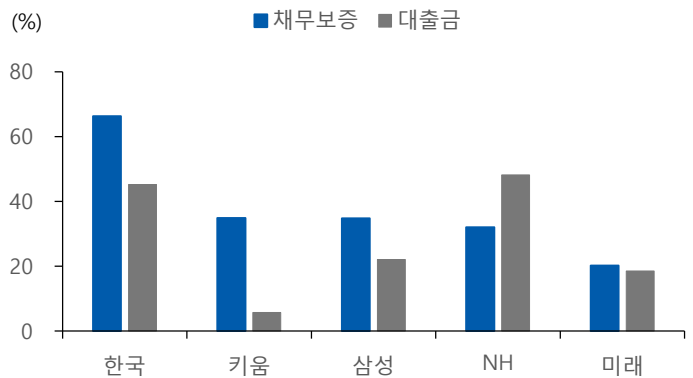
Key Chart

ROE vs.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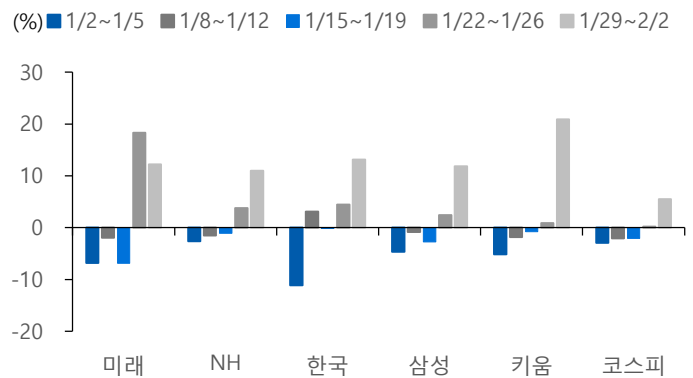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본 대비 채무보증 vs. 대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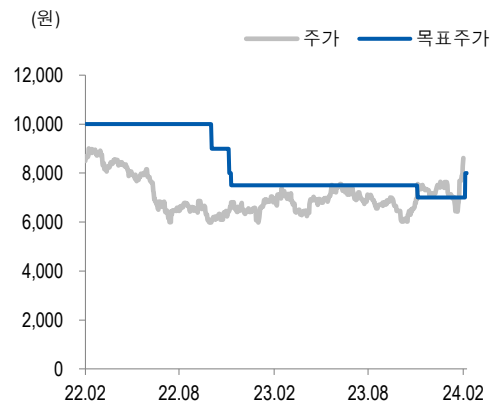
주: 3Q23 증권 별도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가수익률 비교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에셋증권 (0068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2-05	HOLD	8,000	1년		
2023-11-06	HOLD	7,000	1년	4.25	-8.14
2023-02-03	HOLD	7,500	1년	-8.62	0.80
2022-11-11	BUY	7,500	1년	-12.14	-6.00
2022-11-07	BUY	8,000	1년	-17.79	-17.00
2022-10-04	BUY	9,000	1년	-30.66	-28.33
2022-01-28	BUY	10,000	1년	-25.20	-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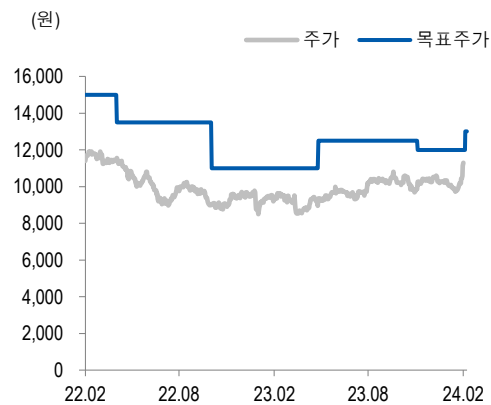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NH 투자증권 (0059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2-05	BUY	13,000	1년		
2023-11-06	BUY	12,000	1년	-14.49	-5.92
2023-04-28	BUY	12,500	1년	-20.54	-13.52
2022-10-04	BUY	11,000	1년	-16.24	-11.09
2022-04-04	BUY	13,500	1년	-26.01	-15.19
2021-06-07	BUY	15,000	1년	-16.21	-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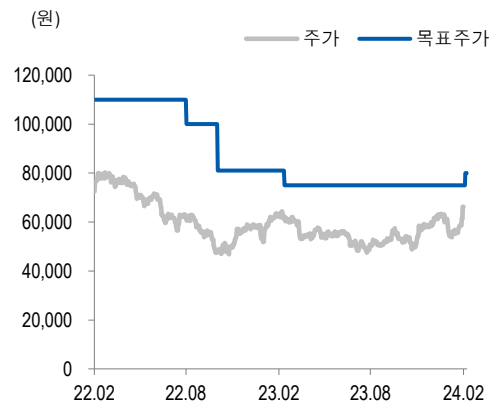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한국금융지주 (0710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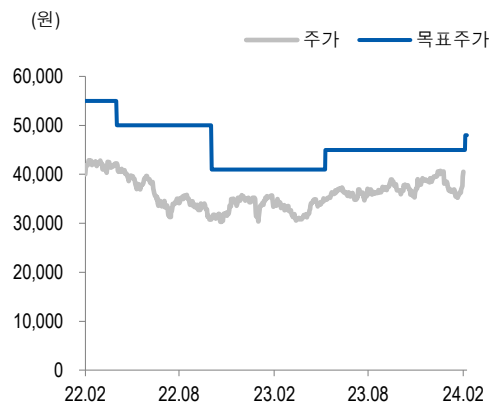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2-05	BUY	80,000	1년		
2023-02-13	BUY	75,000	1년	-26.35	-11.60
2022-10-04	BUY	81,000	1년	-30.69	-20.49
2022-08-03	BUY	100,000	1년	-43.26	-37.10
2021-11-01	BUY	110,000	1년	-32.30	-18.45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삼성증권 (0163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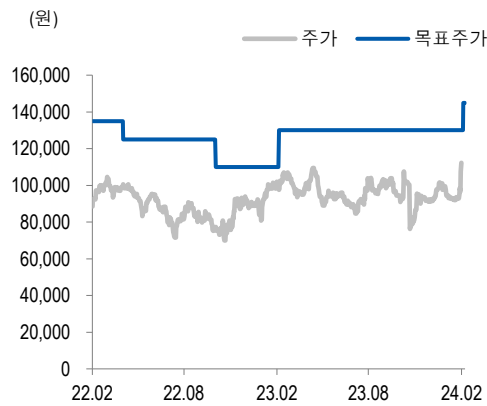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2-05	BUY	48,000	1년		
2023-05-12	BUY	45,000	1년	-17.53	-9.44
2022-10-04	BUY	41,000	1년	-18.79	-12.80
2022-04-04	BUY	50,000	1년	-28.24	-16.30
2021-11-01	BUY	55,000	1년	-19.15	-8.55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키움증권 (03949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2-05	BUY	145,000	1년		
2023-02-06	BUY	130,000	1년	-26.12	-13.69
2022-10-04	BUY	110,000	1년	-20.16	-7.36
2022-04-04	BUY	125,000	1년	-30.53	-19.60
2021-11-01	BUY	135,000	1년	-24.54	-17.04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88.8
Hold(중립)	11.2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4-02-02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정태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